

장흥 하늘빛수목원, 형형색색 '튤립축제' 관광객 북적

23일까지 '제10회 하늘빛수목원 튤립축제' 개최

1000여 종 꽃나무와 야생화 수목원 곳곳 수놓아

장흥군 하늘빛수목원(대표 주재웅)은 이달 1일부터 23일까지 '제10회 튤립 축제'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튤립축제가 한창인 하늘빛수목원은 튤립 뿐만 아니라 1000여 종의 꽃나무와 야생화가 수목원 곳곳을 수놓으며 화사한 봄 풍경을 담아내고 있다.

하늘빛수목원은 전남 제8호, 전국 22번째 민간정원으로 지정된 곳이다. 수목원 내에는 300여 종의 수목과 1000여 종의 다양한 초화류가 어우러져 있다. 수변생태 학습지로 각광을 받아 호기심이 많은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체험을 선사한다. 사계절 가족여행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하

늘빛수목정원은 약 10만㎡ 규모에 편백숲, 생태연못, 글램핑장, 물놀이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수목원 뒤편으로는 편백숲이 넓게 펼쳐져 있어 여유로운 산책도 즐길 수 있다. 주재웅 대표는 "튤립을 비롯해 다양한 봄꽃들이 꽃망울을 터트리고 눈부신 봄기운을 떨치고 있다"며 "제10회 튤립 축제에서 행복한 추억을 안고 돌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강진군, 학생 '푸소(FU-SO)' 본격 가동

올해 36개 학교 6천여 명 예약...내년 예약도 쇄도



코로나19로 주춤했던 강진군의 대표 농촌체험프로그램인 '푸소(FU-SO)'가 본격적인 일상 회복과 함께 다시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강진군은 지난 30일, 광주 송의중학교 학생회 30명의 참여로 시작된 올해 강진군의 학생 푸소(FU-SO)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강진의 주요 문화유적을 답사하고 푸소 농가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각 농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농촌 체험을 통해 농촌 특유의 문화와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 강진군에서 운영하는 '학생 푸소'에는 올해 36개 학교 6천여 명이 예약을 마쳤으며, 2024년도 예약 문의도 쇄도하고 있다. 특히, 5월과 6월, 9월과 10월 등 중간고사가 끝난 이후 특정 시기에 수요가 높아, 체험을 희망하는 학교는 예약을 서둘러야 한다. 치열한 경쟁에 지친 미래 세대에 시골의 따

뜻한 정과 감성을 전하고 농가 소득도 높이기 위해 지난 2015년, 처음 시작된 강진 푸소(FU-SO)체제는 수학여행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으며, 큰 화제를 모았다.

이후 푸소는 공직자 교육, 일반 여행객까지 확대되며 군과 지역민이 힘을 합쳐 국내 지자체 최초로 시행해 성공한 체류형 관광모델 사례로 자리 잡았다.

군은 민선8기 출범과 함께 푸소의 동력을 이용해, 농촌으로 장기 유턴하는 도시민을 유치하고 주거 공간과 일자리를 함께 제공하는 한층 업그레이드 된 '푸소 시즌2'를 본격 추진 중이다.

강진원 군수는 "푸소는 강진군과 강진사람들이 오랜 기간 새로운 도전과 노력으로 쌓아 올린 고유한 브랜드"라며 "탄탄한 기반을 가진 푸소를 통해 관계 인구를 늘리고, 나아가 정주인구로 이어지도록 푸소의 성공 신화를 다시 쓰겠다"고 밝혔다.

체류형 농촌관광 프로그램 푸소(FU-SO)는 'Feeling-Up, Stress-Off'의 약자로 감성은 높이고 스트레스는 버린다는 뜻으로, '덜어내다'라는 의미의 구수한 전라남도 사투리로도 쓰인다.

강진=김영일기자

진도군-필리핀 산마테오시, 계절근로자 도입 MOU

농가 일손 부족 문제 해결 적극 노력

진도군이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필리핀 리잘주 산마테오시와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지난 3월말 우홍섭 진도군 부군수가 필리핀 현지를 방문, 리잘주 산마테오시 혼 바르톨로메 안 리베라 시장 등 상호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필리핀 리잘주 산마테오시는 도입 조건에 적합한 우수인력 선발과 적응 훈련 등을 지원하고, 진도군은 선발된 필리핀 인력을 농어가에 배치해 농어촌 내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진도군은 작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농업분야 134명, 어업분야 143명 총 27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 받았다.

군은 농어업 분야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되어 파종·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매년 반복되는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가 해소돼 지역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필리핀 리잘주 산마테오시와 경제, 문화 등 상호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 더 많은 계절근로자가 고용되어 보다 안정적으로 진도군에 정착할 것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기자

완도군, 공직자 정책 개발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환경·정책 사례 등 분석 통해 지역 맞춤형 과제 개발

완도군은 지난 3월 28일부터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정책 개발 및 사업 기획을 위한 공직자들의 실무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정책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가졌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이주관 이번 워크숍은 7-9급 공직자 36명이 참석하였으며, 6개 팀을 구성해 지역 환경, 정책 사례 등을 분석하고 군에 필요한 맞춤형 과제를 개발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지역 맞춤형 과제로는 ▲관광종합단지 건립 투자 유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문화 캠페인 ▲거점형 실버 세대 인프라 구축 ▲완도군 영세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 ▲청년과 청소년을 위한 '씩 씽' 복합 문화지원 사업 ▲아이 행복감(感) 좋은 완도 등이 제안됐다. 군은 워크숍에서 제안된 정책 과제를 세부



검토, 보완, 수정 과정을 거쳐 핵심 과제로 키워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공직자들이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직무 전문성을 향상시켜 군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해남군 "탄소중립 실천하고 현금으로 돌려받자"

해남군은 탄소중립 실천 주민들에게 포인트를 보상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에너지, 자동차, 녹색생활실천 3가지 분야로 나눈 탄소중립 포인트는 각 분야별 이행 실적에 따라 현금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에너지 분야는 전기·수도·가스요금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최근 2년의 월평균 에너지 사용량과 현재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해 에너지 감축률이 5% 이상이면 연간 최대 10만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특히 해남군은 올해부터 도비 지원을 받아 에너지 감축률이 3% 이상인 가정에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한편 2023년 신규 가입 1,000

가정에 대해 1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4회 연속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지 않은 가정에는 '유지 인센티브'를 지급해 에너지 감축 실천 후에도 꾸준한 생활실천을 독려한다.

탄소포인트제 가입 신청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www.cpoint.or.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개별 가입하거나 군 환경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서면 또는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연중 참여가 가능하다.

자동차 분야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12월에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홈페이지(car.cpoint.or.kr)를 통해 추가 모집하고 있다. 선착순으로 해남 관내 125대 신청이 가능하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